

February 14, 2018

## Africa

### 나이지리아, GM종자의 상업화 추진에 긍정적

국립생명공학개발기구(National Biotechnology Development Agency, NABDA)의 부소장 Rose Gidado박사는 나이지리아에서 GM종자가 시장에 출시될 때 현지 종자 회사들은 농민들에게 종자의 증식 및 분배하는 전략적인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나이지리아 바이오안전성 법은 2015년에 제정되었으며, 이어 국립바이오안전관리청(National Biosafety Management Agency, NBMA)이 설립돼 바이오안전성 규제를 담당하게 되었다. NBMA에 따르면, 나이지리아는 GM 제품들을 상업화 하는데에 적합한 시기이다. 이는 나이지리아가 현재 농민들에 의해 포장시험되고 있는 콩명나방 저항성 동부콩(Maruca-resistant cowpea)과 일반인에 공개된 BT면화(BT cotton)와 같이 제한된 포장 시험을 통해 시험된 주요 GM작물들의 상업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GM종자가 마침내 상업화 될 때, 우리 토종 종자 회사들이 종자 상업화와 증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물론 토종 종자 회사들은 인수합병을 해야 하고, 이 일은 외국 종자 회사들이 결정하는 일이 아니며 외국 종자 회사들이 그 일부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현지 종자 회사들과 협력하여 역량을 구축할 것이다," 라고 아프리카농업생명공학 공개포럼의 나이지리아 코디네이터 Gidado박사가 언급했다. 그녀는 현지 종자 회사들이 이미 종자의 증식과 분배에 참여하고 일깨워주었다고 덧붙였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Leadership Nigeria](#)

## Asia and the Pacific

### 호주 OGTR, GM면화와 캐놀라 승인

호주 유전자기술규제국(OGTR)은 해충 저항성면화(COT102)와 오메가3 오일 함량(DHA 캐놀라)이 향상된 GM캐놀라의 상업적 출시에 대한 승인을 발표했다.

OGTR 공고문에 따르면, COT102와 DHA 캐놀라 및 그 유래 제품들은 인간의 식품 및 동물 사료의 용도를 포함하여 일반 상거래가 가능해 진다고 밝혔다. 또한,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은 이 승인된 생명공학작물에서 파생된 식품의 사용을 승인했다. 이번 승인은 최종 위해성 평가와 위해성관리계획(RARMP)에 근거하였으며, COT102와 DHA 캐놀라의 상업적 출시가 인간과 환경에 위험하지 않으며 특정 위험 처리 방법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GM cotton](#) and [GM canola](#)

## Europe

### 독일, GM작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위험 인식 분석

독일에서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GM작물에 대한 건강상의 우려보다 잠재적인 환경적 위험성을 더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 연구 결과는 국제 소비자 연구 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Consumer Studies*)에 게재되었다.

본 대학(Univeristy of Bonn)과 스웨덴 농업과학대학(Swedish University of Agricultural Sciences)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연구팀은 439명의 독일 소비자들의 유전공학에 관한 위험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은 오직 연구와 개발 만을 허용 하나와 바이오 에너지와 식품 두 가지 최종 제품을 포함한 GM제품의 완전한 상용화를 허용하는 다른, 총 2가지 정책 시나리오로 구성된 4가지 실험 처리 그룹으로 나뉘었다.

조사결과는 건강상의 위험은 일반적으로 식품보다는 바이오 에너지에 사용되는 GM작물에 대해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였다. GM식품의 완전한 상업화로 인해 개인 건강에 대한 우려를 높인 반면, 바이오 에너지를 위한 GM작물 사용은 사회경제적 위험성 수준을 높였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건강상의 위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지만, 환경에 따른 결과도 대부분의 위험 인식을 불러일으켰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Research

### 과학자들, GM작물의 유전자 원으로 슈도모나스의 안전성 연구

미국 듀폰트 파이오니어(Dupont Pioneer)의 과학자들은 유전자변형작물의 유전자 원인 *Pseudomonas chlororaphis* 박테리아의 안전성을 조사했다. 그 결과는 *Transgenic Research* 저널에 게재되었다.

GM작물은 상용화 전 식품, 사료 및 환경 안전성에 대한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엄격한 과학적 기반의 평가 과정을 거친다. 안전성 평가 과정은 어떠한 발생 가능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숙주를 포함한 도입된 각각의 형질의 평가와 같은 다양한 단계를 수반한다. 과학자들은 *Pseudomonas* 박테리아 종이 농업 분야에서 안전하게 적용되어 왔으며, 일부는 살충성 특성을 가진 유전자의 좋은 공급 원임을 보여주었다. 특히, *P. chlororaphis*는 *ipd072Aa*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 유전자가 옥수수에 형질 전환되면 특정 딱정벌레목(coleopteran) 해충을 방어하는 단백질을 발현한다.

이 논문에 따르면, *P. chlororaphis*는 환경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이전 평가를 토대로 알려진 독성이나 알레르기성 특성이 없으며, 식물과 인간 병원균과는 연관관계가 거의 없다. 또한,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P. chlororaphis*는 해충저항성 작물을 개발하기 위한 유전자 원으로서 좋은 후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